

2022 경기예술지원 2차공모
【 원로 예술활동 지원-공연예술 분야 】 심의평

‘원로 예술활동 지원’의 개인과 단체 분야 모두 예술적 역량과 추진능력, 사업계획의 구체성, 작품 내용의 우수성과 예술성, 기대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4인의 심사위원이 살펴보았다. 이러한 기준은 함께 심의한 ‘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’에도 해당한다.

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오랜 시간 활약해온 지원자들이었으나, 대체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심의였다.

근래에 들어 지원사업마다 부각되었던 ‘청년’ 지원 사업과의 세대적 균형감을 맞추고 상생을 위해 기획된 공모사업으로 볼 수 있다.

그간 지혜와 오랜 세월로 무장해온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지원사업이나, 지원자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며, 새로운 모색보다는 그간 행해온 것들을 다시 선보이는 작품들도 보였다.

심의 과정에서 원로의 활동력과 여행력이 여전한지, 무대에서 안전하게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,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후배나 제자를 앞세운 공연은 아닌지 등등을 검토하였다. 그 중 원로가 된 예술가의 ‘다시 보고 싶은 작품’을, ‘기획력’이 돋보이는 지원자들을 선정했다.

2022.5.9.

심의의원

송현민 (음악평론가)

김남수 (<몸> 편집장)

이재원 (원주문화재단 예술감독)

박정호 (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)